

서영대 치위생과, 광주효자요양원 의료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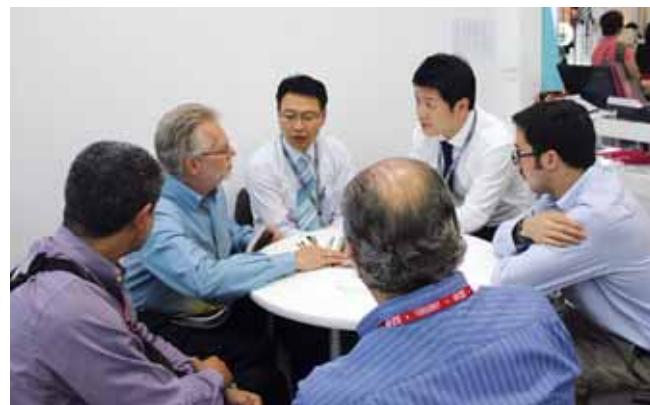
서영대학교 치위생과(학과장 박정수) 학생들이 최근 광주효자요양병원을 찾아 구강의료봉사를 펼쳤다. 학생들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구강검사 및 구강관리, 노년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구강질환 및 예방법 교육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호남대 사회봉사센터 '헌혈 캠페인'



호남대학교 사회봉사센터(센터장 조규정)는 최근 대학 광산캠퍼스 복지관 앞 일원에서 헌혈을 통해 사랑을 나누는 '호남대학교 사랑의 헌혈운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광주대 무역전문가 양성단, 산업부 장관상



광주대 글로벌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 6기 학생인 구준희(경찰법행정학부 4년)씨가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적극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화순전남대병원 '리더스 워크숍'



화순전남대병원(원장직무대행 정신)이 내년 개원 10주년을 앞두고 '제2의 도약'을 위해 힘찬 결의를 다졌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최근 신양파크호텔서 '리더스 워크숍'을 열었다. (전남대병원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 장재철·김순자씨 장남 순평군 성진호·이효순씨 장녀 현아영=3일 (목) 오후 1시 서울 독산동 웨딩캐슬 층 에메랄드실.

▲ 장병호·김순담씨 장남 양규(엠 코코리아)군 라규채(답양 대덕면 장)·박성자씨 장녀 누리(답양군 보건 소) 양=5일(토) 오후 1시 아름다운컨 벤션 2층 베르사체홀.

▲ 조기수(문성고 교사)·김미숙씨 장남 윤광현(화순군보건소 공보의)군 이 삼명·주식회사 한주로건 전무이사·박연님씨 장녀 수린(전주 현대치과 의사) 양=6일(일) 낮 12시 STWIE 컨 벤션 3층 메리골드홀.

▲ 이경원·권정희씨 장남 협우(두 산중공업)군 성석현(전 수자원공사)·장종엽(신가초등학교 교사)씨 장녀 수진(조등학교 교사) 양=19일 (토)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웨딩홀 1 층 세종홀, 피로연=4일(금) 오후 5 시~8시 광주KT컨벤션웨딩홀 4층.

▲ 정기채·육순임씨 장남 천현군 강왕기(前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박길자(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씨 장녀 소리양=12일(토) 오후 1시 20분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 12층 컨 벤션, 광주학운동사무소 광관버스로 오전 8시 출발, 피로연=4일(금) 오후 6시~9시.

동창동문회

▲ 광주 사부대중 4회 동창모임(회 장 전성수)=4일(금) 오후 6시 30분 절라도당(롯데백화점 후문) 062-226-7986.

▲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조재 육) 월례회=5일(토) 오후 6시30분 금강산식당 062-224-0808.

종친회

▲ 제3회 달성공판서공파조 사근산 성추모제=4일(금) 오전 11시 수동 중학교(경남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고귀한 생명나눔 동참해주세요"

신장기증자 백두대간 종주 참여 '새생명나눔회' 나덕주 회장

"신장 기증 후 혈액도 더 많이 하고 무등산 산행 시간도 더 짧아질 정도로 건강이 좋아졌어요. 장기기증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주저하지 마시라고 권유하고 싶어요."

쾌청한 하늘이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10월의 첫 날. 지리산에서는 전국 신장기증인·의식인 50여 명이 모여 백두대간을 함께 올랐다. 가족에게도 신장기증이 쉽지 않은 상황. 생명을 살리겠다는 의지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신장을 기증한 이들이 장기기증에 대한 편견을 깨고 생명나눔의 감동을 알리기 위해 뜻을 모았다.

지난 2006년 9월 생면부지 타인에게 신장을 기증한 새생명나눔회 나덕주(53) 회장 역시 이날 산행에 동행했다. 지난 2005년부터 (사)빛고을문화예술봉사단 단장을 맡아 전국의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나눔을 펼치고 있는 그는 남다른 이웃 사랑을 실천해왔다. 봉사단원들과 전국에서 601 차례 공연을 했고 광주공원 등지에서 수년간 배식봉사활동을 펼쳤다.

신장기증 후에도 7년간 혈액은 383번이나 했다. 이러한 활동이 알려져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문화관광부 장관 표창, 대한적십자사 총재 표창, 현 협유공장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상을 받았다.

꾸준한 이웃 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는 나덕주 역시 처음에는 혈액과 장기기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다. 가족들의 우려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나눔을 실천했다.

"헌혈을 하며 얻는 보람은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꾸준히 헌혈을 하면 장기기

증이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장기기증을 기다리는 수많은 환우들에게 생명의 불씨를 나눈다고 생각하면 정말 뿐蠹해요."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 1995년 골수, 신장, 간, 시신기증을 약속한 나 회장. 그는 지난 2006년 신장기증을 할 때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남모르게 실천했다. 광주 봉사를 할 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신념 때문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의 생각이 달라졌다. 장기기증에 대한 편견을 깨고 더 많은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생명을 나누는 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요. 장기기증을 하면 여러분이 나눈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가족들이 걱정하더라도 주저하지 않고 더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 결단해주세요."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되새기는 '홍익인간 정신'

광주 개천절 경축행사, 내일 치평동 무각사 단성전

광주지역 개천절 경축행사가 3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무각사 단성전에서 열린다.

(사)국조승모회가 주최하고 가톨릭농민회 광주대교구연합회 등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단기 4346개 개천절을 맞아 개천절행사위원회(이사장 염홍섭, 회장 이종일, 집행위원장 장두석·사진)가 진행할 예정이다.

일본의 우경화와 역사교과서 문제에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장두석 위원장은 역사의식에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뿌리 없는 나무 없고 조상 없는 민족도

없습니다. 만약 조상도 근원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영원한 방랑자일 것이며 제대로 사람 구실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경축행사는 단군 왕검의 홍익인간 정신을 기리며 판소리, 풍물공연 등이 이어진다.

국조대제는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고 고구려·백제·신라·고려·조선시대를 거쳐 내려온 전통 제례의식으로 한때 사라졌다.だが 지난 1998년 국조승모회와 민족정기회 등의 노력으로 복원됐다.

장 위원장은 개천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선조들의 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우리 사회가 서구 문명에 장악돼 본래 가진 것들에 대한 가치를 잊어버렸습니다. 광주가 문화 중심도시로 한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근본을 제대로 알고 그 속에 아시아의 문화를 놓여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입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윤택림 전남대병원 교수 한국생체재료학회장



화순전남대교병원(원장직무대행 정신) 정형외과 주임교수인 윤택림 교수가 한국생체재료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윤교수는 최근 서울기술과학대학에서 열린 이 학회의 제21차 학술대회에서 제13대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이다.

생체재료란 손상되거나 약해진 인체조직·장기를 대체할 인공적인 물질을 의미하며, 윤교수는 새로운 티타늄 합금과 인공관절을 개발하는 등 뛰어난 학술적과 학회활동을 인정받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함평 출신 기업인 고향사랑

아동시설 2곳 냉·난방기 3대 기증

함평군 손불면 출신 기업인의 고향사랑이 지역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대전에서 나성종합건설을 운영하는 김복수(65)회장은 최근 지역 아동복지시설 2곳에 냉·난방기 3대를 기증했다.

김 회장은 "지역 학생들이 폐쇄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이 지역을 뜯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8년 지역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동호회를 창설하자 200만원을 기부하면서부터다.

지난해에는 지역아동센터와 자매결연, 1000만원을 들여 재래식 회장실을 수식으로 교체하고, 700만원을 들여 지역 교회의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강판지붕으로 바꿔주기도 했다.

김 회장은 "고향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 알려져 부끄럽지만 어려운 지역민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노력해서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희기자 hwang@

건강관리협 광주전남지부, 9일 건강검진 실시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는 오는 9일 한글날 바쁜 일상과 직장 업무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전 7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 검진을 실시한다. 검진을 원하는 사람은 사전 예약(062-363-4040)을 하면 된다.

메디체크 강신규 본부장은 "이번 한글날 건강검진은 시간이 없어 종합검진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 좋은 기회"라며 "개인에게 맞는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

행복문화사업단 '야호! 총장로' 음반 발매



사회적기업 행복문화사업단(공동대표 정선희, 이춘석)은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총장로축제'의 성공을 기원하고, 지역사랑 노래 보급을 위해 김유성 가수의 신곡 '야호! 총장로' 음반을 발매했다.

'우다방에서 커피 한잔·총파 앞에서 피자 한판'이라는 가사처럼 광주 대표 거리 총장로에서 추억을 노래하는 곡은 총장로 축제 때 시민들과 함께 부르기 위해 기획됐다.

노래는 행복문화사업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김유성 가수는 "과거 뜨거운 태양처럼 민주화를 위해 달려왔던 광주가 앞으로는 은은한 달처럼 세상을 풀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다"며 곡에 담긴 의미를 전했다.

행복문화사업단 뮤동훈 단장은 "광주를 대표하는 총장로축제에서 우리 지역 가수가 지역민과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들기 위해 기획하게 됐다"며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삶과 애환이 오롯이 담긴 노래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노래하고 싶다"고 말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7482, 019-622-1721.

선대병원 장례식장 8분향소 062-231-8908.

▲ 박병찬씨 별세 준희(기아자동차)·영심·영숙·영란씨 부친장 일행 주(광주정보통신)·김상영씨 빙모상 = 밭인 2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 이일근씨 별세 호인·호배·성만·정자씨 부친상 = 밭인 2일(수) KS 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960-4444.

谨 삼가 故人의 慎福을 빙니다弔

201호 故이귀례 님(여/81세) 401호 故 정정 님(여/74세)

孫: 정영만·정충·정민·후식·후성

子/女: 정충현·정숙자·정민·정민숙·정민숙

• 호: 실: 201호 • 밭: 인: 10월 2일

• 장: 지: 화순한천 • 연락처: 227-4381

402호 故 김진 님(여/74세) 101호 故 임희례 님(여/83세)

孫: 김희덕

孫: 김경호·정식·희숙

• 호: 실: 402호 • 밭: 인: 10월 3일

• 장: 지: 화순부민 • 연락처: 227-4314

마 우 까 지 편 안 한

孝 금호 장례식장

문의 (062)227-4000

<http://www.mykumho.com>